

반려견 건강을 위한 10가지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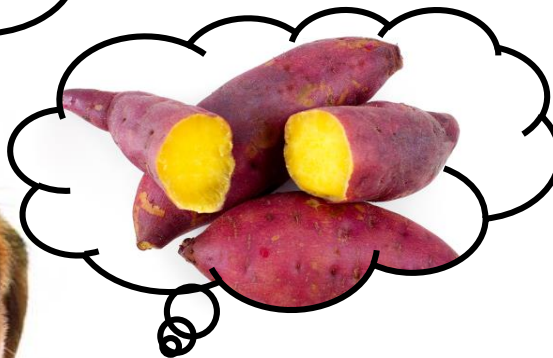
1.플레인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에 함유된 좋은 유산균은 많이 나쁜 유산균을 없애주는 좋은 음식이다. 장의 필요하지 않은 나쁜 물질들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맛도 좋아 사람들부터 즐겨 먹는 플레인 요거트는 반려견과 나누어 먹어도 괜찮은 식품이다



2.고구마

고구마는 반려견이 가장
흡수하기 좋은탄수화물이며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c와 나이아신이
풍부하다



3. 단호박

맛이 달콤하여 강아지들에게
선호도가 높으며, 비타민 A 풍부하고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혈행을
좋게하고, 눈 피부에도 좋다



4. 연어



연어는 강아지의 피부 및 모질 향상, 비듬 제거에 매우 효과적인 음식이다. 하지만 꼭 삶아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연어는 소화 흡수가 좋은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아연 등 생리작용을 하는 여러 성분이 들어 있는 건강식품이지만, 지방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적당량만 주는 것이 좋다.



5. 삶은 계란노른자

계란 노른자는 영양이 고루 많아 영양이 부족하거나 회복기에 있거나 출산 직후인 강아지에게 좋다. 노른자는 근육에도 좋고, 강아지의 체력 향상, 수유량 증가, 피모 건강 향상 등의 효과를 불러오는 건강 음식이다. 단 너무 자주 주는 것보다, 정상 성견 기준 1주일에 1알 정도 주는 것이 적당하다.



6. 닭가슴살

간질환예방에 효과가 있는
닭가슴살은 쇠고기보다
메티오닌을 비롯한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간장의 기능을 돕는다

닭부위에서 가장 지방
함유량이 적으므로 사람이나
강아지의 다이어트에
탁월하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강아지 몸에 좋은 것 중에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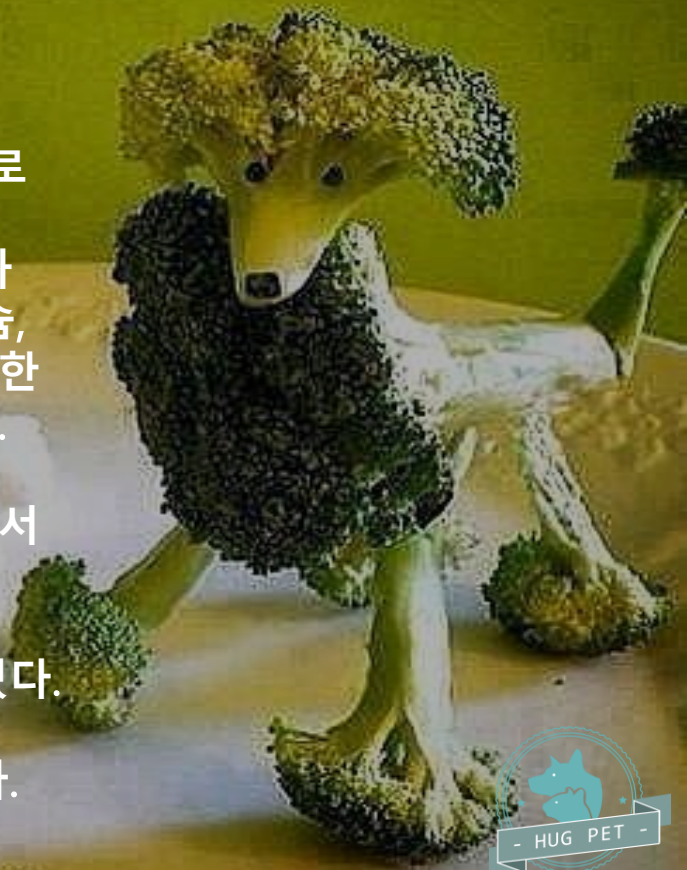
7. 당근

당근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사람에게도 좋기로 유명한 채소 중 하나이지만, 당근은 강아지의 코가 벗겨지는 증상이나, 털이 탈색되는 증상, 탈모 등을 예방해주며, 시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어린 강아지에게는 물에 삶거나 찌서 주면 장염 예방에도 좋다. 단 많이 먹을 경우 설사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에 손가락 두 개 정도의 양이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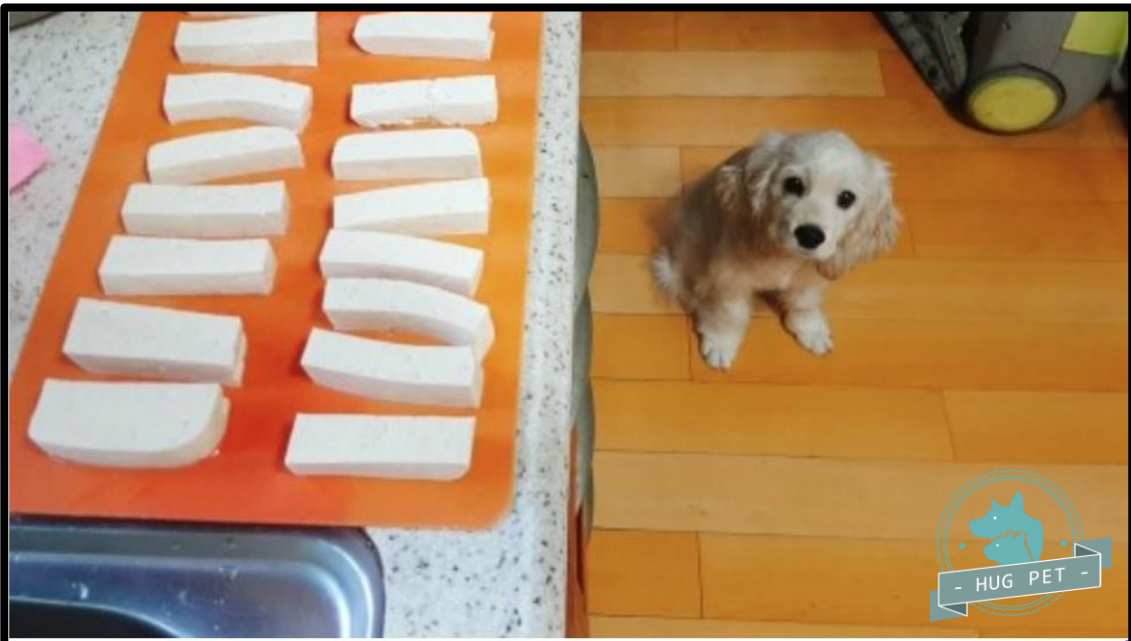
8. 브로콜리

사람들 사이에선
다크서클을 없애주기로
유명한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엽산, 칼슘,
식물성 섬유소를 함유한
건강미 넘치는 채소다.
장 청소를 해주기까지
하는 브로콜리는 삶아서
잘게 잘라 강아지에게
주면 강아지의 소화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단, 많이 먹을 경우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9.두부

두부는 리놀산을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올리고당이 많아 장의 움직임을 활성화하며 소화흡수를 돕는다.두부는 그냥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한번 삶아서 강아지에게 먹이는게 더 좋다.



10.바나나

반려견의 고혈압을 예방하고 싶다면 바나나를 추천한다. 바나나는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반려견의 고혈압은 신장, 안구,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바나나의 칼륨 성분은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시켜 혈압의 정상 수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펙틴 성분은 장운동을 향상시키고, 경미한 설사 증상을 완화시킨다. 바나나의 비타민 B6 및 C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기여한다.

